

제5기

감리교 청년목회 전문 훈련과정

Youth Ministry Methodist Training Course



We know that we have passed from death to life, because we love our brothers. Anyone who does not love remains in death. Anyone who hates his brother is a murderer, and you know that no murderer has eternal life in him. This is how we know what love is: Jesus Christ laid down his life for us. And we ought to lay down our lives for our brothers.

1 John 3:14-16

Time Table 시간표



시간	7일 (월)	8일 (화)	9일 (수)
07:00		기상 / 세면	기상 / 세면
08:00		아침식사	
09:00		STEP 4 소그룹, 특별한 경험 양형주 목사	STEP 7 리더교육의 핵심 심은수 목사
10:00			
11:00		STEP 5 행사불패의 비밀 김영석 목사	소그룹 토의 2
12:00			폐회예배 정현범 목사
13:00		점심식사	
14:00	개회예배 박상칠 목사	STEP 6 양육, 세우는 기쁨 현철호 목사	
15:00	STEP 1 첫걸음, 새가족교육		
16:00	송민혜 전도사	Coffee Break	
17:00	코이노니아	소그룹 토의 1	
18:00		저녁식사	
19:00	STEP 2 설교, 말씀을 심어라 조세영 목사	〈집회〉 방문자를 헌신자로 김동준 목사	
20:00			
21:00	STEP 3 예배, 부흥의 동력		
22:00	황종윤 목사		
23:00		취침	

Contents 목차



Main Section _ 방문자에서 헌신자가 되기까지의 7 STEP

처음부터 건강한 성도가 되어 교회에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호기심으로부터 시작하여 진리에 까지 이르는 과정을 거칩니다.
부흥하는 청년부들의 실제적인 노하우를 나누고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STEP 1	〈첫걸음, 새가족교육〉	송민혜		6
STEP 2	〈설교, 말씀을 심어라〉	조세영		20
STEP 3	〈예배, 부흥의 동력〉	황종윤		30
STEP 4	〈소그룹, 특별한 경험〉	양형주		40
STEP 5	〈행사불패의 비밀〉	김영석		48
STEP 6	〈양육, 세우는 기쁨〉	현철호		60
STEP 7	〈리더교육의 핵심〉	심은수		82

Discussion Section _ 궁금하면 참을 수 없다. 서로 물고 답하는 시간

이론에 대한 공부와 실제적인 사례를 들어도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함께 청년들을 섬기는 사역자들과 함께 속시원히 대화나누는 시간입니다.
그 어떤 수업보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Discussion 1	강사들과 나누는 포럼식 토의		70
Discussion 2	소그룹별로 나누는 규모별 토의		92

Step 1 _ 종교교회 새가족 정착의 비결을 말한다

첫걸음, 새가족교육

| 송민혜 전도사 songminhye@gmail.com 종교교회 청년담당

조직 및 역할

1. 새가족 담당 교역자 1명

매주 1주차 모임을 인도한다. 방문자들에게 교회와 공동체를 소개해 주고, 적합한 새가족 리더를 연결해 주며, 2주차 교육 후에는 또래 친구를 소개하여 목장으로 연결시킨다.

2. 평신도 새가족 리더 4–6명 (2명, 혹은 3명이 한 조)

새가족 모임은 두 주간 진행되므로, 두 명이 한 조로 구성되어 로테이션으로 방문자를 맞이한다.

A팀과 B팀 모두 행정담당과 물품담당의 역할을 나눈다. 방문자가 한 주 걸려 오거나, 결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새가족 리더들도 방문자의 상황에 따라 팀이 바뀌게 된다. 그럴 때에는 융통성 있게 리더들을 바꿔주고 적절하게 일을 나눠줘야



한다. 이를 위해 예배 한 시간 전에 새가족 리더들이 함께 모여, 그 주 2주차 방문자 참석(지난 주 방문자와 미리 통화)을 예상하여 일을 배분한다.

행정담당:

방문자 카드, 1주차 모임을 위한 질문지 준비, 1주차 모임 후 카드와 질문지 정리, 2주차를 마친 방문자 (2주차 후에는 등록자로 변경) 사진 촬영과 엑셀 파일로 저장, 다음 주일 예배 시 등록자 환영 PPT 만들기

새가족 방문카드			
이 름	(남. 여)	세례여부	(유/무)
생년월일	년	월	일 (양. 음)
핸드폰번호			
주 소			
인도자/관계		방문일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공동체, 당신과 함께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Joshua
Ministry
Community Church

1-a 방문카드

2011년 10월 넷째 주 여호수아 새가족



안녕하세요?!

김영석 목사님의 소개로 종교교회에 오게 된 송민혜입니다. 32세이고, 영어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처음이라서 낯설고,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많이 가르쳐주시고, 도와주세요. ^^

송민혜
온혜마을 정은목장

 Joshua
Ministry
Community Church

1-b PPT

<p style="color: blue; font-size: 1.5em; margin-bottom: 0;">알고싶어요^^</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0;">이름 :</p> <p>1 신앙생활 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어떻게 종교회 오시게 되었는지 궁금해요.^^</p> <p>2 직장인이신가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소개해 주세요. 학생이신가요? 전공이 무엇인지 소개해 주세요.</p> <p>3 취미활동이나 관심분야가 있으신가요? 나눠주세요.</p> <p>4 종교회 청년부의 청인상, 방문 소감을 적어주세요.</p> <p>5 배정되는 목장이 이런 곳이면 좋겠습니다. 골라주세요.</p> <p><input type="checkbox"/> 친지에게 말씀을 나누는 목장 <input type="checkbox"/> 모원들끼리 자주 만나고 기죽같이 지내는 목장 <input type="checkbox"/> 재미있고 에너지가 넘치는 목장 <input type="checkbox"/> 기도하는 드가운 목장 <input type="checkbox"/> 기타 ()</p> <p>6 부탁하실 기도제목을 적어주세요.</p> <p style="font-size: 0.8em; margin-top: 10px;">나름 청년상내</p> <p>지봉 축제 기획회 11, 7-11 제작 축제 11, 13 죽인 당시신 민인양 묘지길 11, 18 (사랑하기 좋은 남) 특강 11, 20 김정 봉사 11, 26 마을 감사 예배 11.27</p> <p style="font-size: 0.8em; margin-top: 10px;">우리의 친구들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 예배 오후3시, 3층 예배실 금요기도회 오후8시, 2층 예배실</p>	<p style="text-align: right;">* 관심 분야에 체크 해주세요.</p> <p style="text-align: center;">예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주일 예배수아 친임팀 <input type="checkbox"/> 예배 헌신자 예배 친임팀 <input type="checkbox"/> 예배 섬김팀 (방송실 봉사) <input type="checkbox"/> 하나님다리 친임대 <input type="checkbox"/> 현금, 인내 위원 <input type="checkbox"/> 새가족 리더 <p style="text-align: center;">임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일대일 새로운 삶 <input type="checkbox"/> 큐티가 즐겁다 <input type="checkbox"/> 크리스천 베이직 <input type="checkbox"/> 성장반 <input type="checkbox"/> 본문으로 사는 제자 <input type="checkbox"/> 이해하여 성경읽기 <p style="text-align: center;">봉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말라리아 퇴치 사업 <input type="checkbox"/> 기아캠프 <input type="checkbox"/> 외요 만니 (노숙자 봉사) <input type="checkbox"/> 김정, 연단, 도배 봉사 (개설별) <input type="checkbox"/> 예로수아 학당 (외국인 한글학교)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  </p>
---	--

1-c 질문지

물품담당:

1주차 간식(몽쉘통통과 음료), 2주차 등록자 선물(성경책과 큐티책) 준비, 1주차 시 미리 테이블 세팅하기 (예배 후, 방문자와 새가족 리더의 숫자를 파악하여 미리 모임 장소에 도착하여 간식, 질문지, 볼펜세팅)

진행 순서

1. 예배 전

우리 새가족 리더 대부분은 교사로, 마을장으로 함께 봉사하기 때문에, 리더들이 지칠까봐 새가족 모임을 하지 않았던 적도 있었다. 그 결과, 방문자들은 전부 새





가족 리더의 책임처럼 되고, 리더들이 책임지지 못할 경우 일주차 모임 후의 방문자 행방이 묘연해지는 일도 발생하였다. 오히려 새가족 리더들은 더 부담을 느끼고 지쳐갔다.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아 불신하는 일도 생기고, 팀웍에 문제가 발생하여 우리만의 생기도 기쁨도 없어졌다. 다시 큐티모임을 시도해보기도 하고, 회의모임으로도 시도해보았지만 리더들이 회복되지 않았다. 그래서 새가족 모임같은 새가족 리더 모임을 만들기로 했다.

현재 우리 새가족 팀은 한 시간 전에 모여서 다과를 나누고 일주일 동안 있었던 재밌는 에피소드, 은혜 받았던 일, 방문자, 등록자들의 특별한 동정을 나눈다. 그리고 2주차 참석 예정 방문자에 따른 1,2주차 역할을 배분하고, 15분 동안은 서로를 위해, 예배를 위해, 방문자들을 위해 기도로 마무리 한 후 예배 30분 전에 안내할 곳으로 내려간다.

2. 예배 중

예배에 들어가는 사람 중 낯선 사람은 무조건 따라간다. “죄송한데, 혹시 저희 교회 처음이신가요?” 혹은 “목장에 소속이 되어있으신가요?” 라고 묻는다. 대답을 피하고, 많이 당해봤다는 듯이 재빨리 들어가는 방문자들에게는 최대한 정중하게 마무리 멘트를 한다. “예배 잘 드리시고, 예배 중에 마음이 생기시면 예배 후에 3분단 뒤로 오세요. 목사님께서 안내책자 나눠주시는데 받아가세요.”

방문자 중의 우리의 권면을 반겨주는 사람들, 혹은 쑥스러워하지만 싫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방문카드를 적게 하거나, 예배 후 3분단 뒤편 새가족 석으로 오시면 목사님께서 안내책자 주실 거라고 알려준다. 그 사람이 어디 앉는지 지켜보고, 예배 후에 그곳으로 가서 다시 권면하여 새가족 석으로 데려온다.

설교 후 광고 시간에 담당목사가 PPT (1-b)를 띄워 등록자를 소개하고, 다같이 환영송 (아주 먼 옛날 후렴)을 불러 축복해준다.

3. 예배 후

새가족 리더들은 방문자들을 찾아다니며 권면하여 3분단 뒤 새가족 석에 앉하고 방문카드(1-a)를 쓰게 한다. 1주차 담당 리더 중 한명은 방문자들이 방문카드를 적고 목사님을 기다리는 사이, 인원을 파악하여 미리 모임 장소에 도착하여 세팅 한다. 청년담당목사가 청년들 배웅을 마치고 방문자들에게 와서 방문카드를 보며 인사하고 기도해주며 1주차 모임을 권면한다.

방문카드를 적은 방문자들은 대부분은 1주차 모임에 참석한다. 방문자들을 데려가서, 간식을 먹으며 각자 소개 및 교회 소개를 위한 질문지(1-b)에 답을 작성하게 한다. 새가족 리더와 방문자 모두 각자 자기소개를 하고, 마지막에 교회와 사역을 소개를 한다. 예전에는 일방적으로 교회 소개나 우리 청년부의 가치관 교육 등을 했었다. 그러나 방문자들과 나눔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그들이 가장 듣고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이 교회에서 자신이 무엇을 얻을 수 있나, 나는 이들에게 어떤 존재로 여겨지나 등이었다. 그래서 자기소개를 더 성의껏 하고, 방문자들이 소개할 때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리액션도 열심히 하며, ‘우리는 당신에게 관심이 많다’는 마음을 잘 표현하려고 노력한다. 이 때, 새가족 리더들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방문자들은 새가족 리더들의 반응과 분위기를 이미지로 남긴다. 새가족 리더가 소개하면, 매번하는 소개라고 여겨 다른 새가족 리더가 자신도 모르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거나, 테이블을 명하니 쳐다보고, 낙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우리는 매번 이 문제를 같이 이야기 하며 서로의 태도를 수정해나갔다. 지금은 새가족 리더들이 자신을 소개할 때에도 같이 웃어주고, 개그도 치며 우리끼리도 매우 즐거워하려고 노력한다. 방문자가 자신을 소개할 때는 말할 것도 없다. 우리는 최대한 세련되고 예의 바르게, 그러나 편안하고 즐거운 이미지를 심어주려 노력한다. 서로를 소개하고 교회의 주 사역 및 활동을 소개한 후, 연령과 성향을 고려하여, 함께 참여한 새가족리더와 방문자를 연결시켜준다. 연결된 방문자와 새가족리더는 기도제목과 전화번호를 나누고 헤어진다. 일주일 동안 새가족 리더는 방문자에게 문자, 가능하면 전화심방을 통해 다음 주 출석을 도와준다. 이렇게 그룹으로 일주차 모임을 하게 되면, 새가족리더에게 급한 일이 생겨 그 다음



주 예배에 못 오게 되더라도 함께 일주차 모임에 참여한 다른 새가족리더가 방문자를 캐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 2주차

지난 주 관계 맷은 방문자에게 새가족리더는 15분 동안 복음 제시를 한 후, 함께 청년담당목사를 만난다. 이미 두 주간의 예배와 새가족 모임을 통해 마음의 문이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담당 목사와의 면담을 대부분 기대하게 된다. 담당 목사와 면담 후, 함께 사진 촬영을 하고, 담당 목사는 등록자가 된 방문자에게 성경책과 목장 모임에서 사용할 큐티책을 선물한다. 새가족 담당 전도사는 주중에 전화하여 목장을 배정하고, 목자에게 연결시켜 목자가 직접 등록자에게 전화하여 예배 전후로 만나게 한다.

※ 여기서 일대일 양육 약속을 잡는 것이 접근도 쉽고 가장 효과적이다. 일대일 양육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소개하겠다.

새가족 리더 세우기

새가족 리더는 고급리더 양성소이다. 새로 세워진 새가족 리더들의 변화와 성장을 보면서 알게 된 사실이다.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여 감정의 기복이 심한 리더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게 되면서 감정을 정제하고 성숙하는 훈련을 하게 된다. 누구도 예외 없이 새가족 리더로 섬기게 되면 성숙해지고 건강해진다. 그러나 새가족 리더는 이미 건강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원칙이다.

1. 외모

매우 중요하다.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화려한 의상이나 외모에 너무 많은 관심을 쏟는 사람은 예뻐도 금물! 자신을 단정하고 정성스

쉽게 꾸밀 줄 알고, 외모로 열등감이 있거나, 혹은 자신감으로 어필하지 않는 사람이 좋다.

2. 성격

사람들은 새가족 리더는 활발하고 사람들하고 쉽게 잘 친해지는 사람들이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4년간의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 오히려 조심성 있고 예의 바른 청년들을 방문자들은 더 좋아한다. 처음 만났을 때, 오버하며 친근한 분위기를 조성하면 재미는 있다. 그런데 집에 가서 생각해보면 다음 주에 가면 친한 척 해야 할 것 같고,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 부담스럽기도 하다. 오히려 적극적이고 활발한 새가족 리더이면 더 조심하고 예의 있게 대할 것을 권면한다. 그러나 성향, 성격과 상관없이 꼭 갖추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실성과 친절함이다.

3. 신앙

모태신앙의 사람, 늦게 믿기 시작했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뜨거운 사람 등 상관없다. 돌아보니 하나님은 리더들의 신앙 수준에 맞게 새가족들을 보내주셨다. 우리 새가족리더 중에 소위 말해 불 받고, 뜨겁게 현신하는 리더가 있다. 그 리더는 대부분 방황하는 모태신앙 방문자, 혹은 예전에 믿었다가 냉랭해진 방문자들을 맞이한다. 또 약간 소극적이고 내향적이지만 잘 웃고 잘 들어주는 리더도 있다. 그 리더는 대부분 교회 처음 나오거나 세례 받지 않은 방문자, 혹은 교회에서 상처 받았던 사람들을 주로 섬긴다.

새가족(방문자)은 오래된 가족과 새가족으로 구성된다. 새가족에게는 믿음과 성도의 태도를 심어주는 것이 목적이고, 오래된 가족에게는 믿음에 불을 붙여주는





것이 목적이다.

1. Attitude (태도)

a. 한 사람을 위한 일이라고 소홀히 여겨서는 효과를 얻을 수 없다.

언제나 준비된 모습으로, 설교하듯이 열정적으로 해야 한다. 대충 해서 열매가 없으면 양육하는 사람이 지친다. 열정을 유지하는 것도 훈련해야 한다.

13

b. 지금 만나는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여겨야 한다.

때로는 책을 선물하고, 스타벅스 커피도 사준다. 시간과 공간도 양육 받는 사람에게 다 맞춰 준다. 물질과 시간으로 감동시킨다.

c. 프로페셔널의 조건, 암기하라!

모든 내용을 외워서 해야 양육 받는 사람에게 집중하며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d.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대부분은 양육 받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의 경우 특별한 사랑을 주실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해야 하는 의무감이 더 많다. 물론 양육 받는 사람의 변화를 기대하지만 그 시기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양육 받는 사람의 변화, 수업의 결과에 집착하면 쉽게 실망하고 지칠 수 있다.

일대일 양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 같다. 나는 불완전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선한 분이라는 사실, 나는 그분께 잘못할 때도 많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신뢰를 보여줄 때 양육 받는 사람은 오히려 더 감동 받는다. 독선적인 태도를 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보여주라는 것이다.

2. Benefit (유익)

a. 집중력이 떨어지는 세대에 적합하다.

성경공부를 하는 도중에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질문을 던진다.

b. 일대일은 양육에도 효과적이지만 사랑을 표현하기에도 효과적이다.

시간과 물질은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c. 청년들에게 신앙적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

본성에 근거하고, 세상에서 심어준 자기중심적 사고와 질문을 성경 중심적 사고와 하나님의 시각으로 돌려 줘야 한다. 이것은 일대일이 가장 효과적이다. 한 사람의 신앙적인 태도와 삶의 가치관은 일대일을 할 때 가장 편안하고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d. 깊은 죄의 문제가 드러나기도 한다.

갑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던 깊은 중독, 죄의 문제를 고백하기도 한다. 이럴 때에는 복음은 치료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차분하게 들어준다. 수업 후에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더욱 친절하게 대해줘야 한다. 나의 경우는 주로 40일이나 21일 기도를 권면하여 함께 매일 기도하고 습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

e.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켜준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에 대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준다. 교회 스케줄, 행사 준비 등으로 소홀해 질 수 있는 사랑의 노력, 그 수고의 가치를 다시 일깨워 준다.

f. 영적인 권위가 생긴다.

친밀하고 신뢰 받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밥을 사주는 것, 커피를 사주는 것보다 일대일 양육이 더 효과적이다. 양육 후에는 영적인 권위를 주기 때문에, 다른 행사와 사역 참여에 독려하는 것도 훨씬 쉬워진다.



3. Contents (내용)

a. 질문이 듣게 만든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흔하기 때문에 지루하게 여길 수 있다. 때로는 질문으로,(하나님이 계신데 왜 고통이 있을까?, 기독교는 왜 배타적인가? 선악과는 왜 주셨을까? 등) 흥미를 유발시키거나, 아니면 재미있는 명제를 통해 궁금증을 던지기도 한다.(좋은 생각이 옳은 생각은 아니다, 성공을 위한 인간관계냐, 인간관계를 위한 성공이냐, 믿음은 선택이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100% 해주신다? 등)

b. 성경구절을 찾아서 써오고, 요절을 암송하는 숙제를 내준다.

성경에 답이 있다는 것과, 성경의 권위를 자연스럽게 인식시켜준다.

c. 마무리 기도를 시킨다.

영접기도는 어색해서 안하지만, 자기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험을 도와주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마무리 기도를 시킨다.

4. Developed Story (발전된 이야기)

탁월한 재주가 없어 시작한 일이었다. 열심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년 동안은 한 달에 평균 80만원의 커피 값, 밥값을 써가며 사람들을 만났다. 하루에 8명과 8번의 수업을 한 적도 있다. 지금 돌이켜보니 그렇게 200명을 넘게 만나는 동안 사람들과의 관계를 넘어 하나님과의 특별한 추억들이 많이 쌓였다.

사람들에게 수없이 바람 맞기도 하고, 깊은 중독이나 우울증과 집착이 있던 사람들에게 시달리기도 했으며, 무례한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적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지혜가 있었다. 변화되는 일부의 청년들을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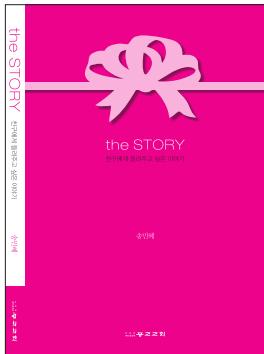
며 누군가의 특별한 간증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기도 했고, 현장에서 주시는 뜨거운 눈물도 있었다. 그 맛 때문에 포기하고 싶다가도 다시 일어섰던 것 같다.

작년 여름 즈음부터 타교회에서 일대일 양육의 노하우, 내용과 자료 등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생겼다. 고된 일이라 동역자를 만들 엄두조차 못 내던 때였기 때문에 정리된 자료조차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 오신 전도사님이 함께 양육하기 위해 강의를 녹취 및 정리하셨고, 그 자료가 발전되어 지금의 〈the STORY〉가 되었다.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나만 누리지 말고 나누길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고, 평신도 양육자를 세우기로 결심했다. 올 11월부터 종교교회 청년부에 드디어 평신도 양육자 청년들이 세워지게 된다. 평신도 양육자를 세우는 원칙은 다음과 같다.

- ① 양육자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돋는 선배로 세워진다.
- ② 새가족은 교역자가, 이미 성경학교 수업 경험 있는 청년은 양육 선배가 맡는다.
- ③ 양육자는 신앙생활, 성품, 현신 등에서 공동체의 인정을 받고, 목사님께 검증 받은 리더여야 한다.
- ④ 5주 동안 진행되며,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돋는 것이 원칙이다.
- ⑤ 고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쉬운 내용을 나눈다. 목표는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신앙생활을 돋는 것이다. 따라서 과제는 5주 동안 양육선배와 함께 한번 이상 금요기도회 참석하기, 주일 예배 10분전 중보기도회에 참석하고 예배 맨 앞자리에 앉기, 요절외우기, 주일 설교 받아 적고 함께 은혜 나누기 등이다.
- ⑥ 양육자 역시, 다른 청년들과 똑같이 목사님께 성경을 배우며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 받아야 한다.





the STORY 송민혜 지음

청년들과 일대일 양육하며 나눈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하였다.

Q & A

18



Q & A



설교, 말씀을 심어라

| 조세영 목사 say130@hanmail.net 현 금성교회 담임목사, 전 용두동교회 청년담당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것은 강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들이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설교는 그들 자신의 생활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설교자들의 설교가 그냥 지나치고 있기 때문이다” (칼 라네)

1. 청년설교의 현주소와 문제점 진단

- 20
-
- 나의 설교는 청년대학생들에게 들려지는 설교인가?
 - 나의 설교는 청년들을 사로잡는 설교인가?
 - 나의 설교는 청년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고 있는가?
 - 나의 설교는 시대를 분별하고 길을 제시하는 설교인가?





1) 설교에 있어서 청년들과 설교자가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자.

자신은 설교자로써 어떤 경향인지 표시해 보고,
청년청중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 분석해 봅시다. (=, <, >모양으로 표시)

영역	질문	설교자	청년
관심	설교자는 더 가르쳐주려고 애를 쓰지만, 청년들은 감동받으려고 애를 쓴다.	가르침 감동	
목표	설교자는 수준 있는 설교를 하려고 하지만, 청년들은 쉬운 설교를 듣고 싶어한다.	수준 쉬운	
흥미	설교자는 한 번 사용한 본분을 피하려고 하지만, 청년들은 잘 아는 본문에 흥미를 느낀다.	새로움 익숙함	
중심	설교자는 성경적인 설교를 하려고 하지만, 청년들은 현대적인 것을 들으려고 한다.	성경적 현대적	
의도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려고 하지만, 청년들은 생활중심의 설교를 들으려고 한다.	말씀 생활	
추구	설교자는 성도를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지만, 청년들은 은혜 받으려고 애를 쓴다.	변화 은혜	
초점	설교자는 하나님의 의도에 초점을 맞추지만, 청년들은 내 길을 묻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하나님 내길	
도구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주려고 하지만, 청년들은 예화로 감동을 받는다.	말씀 예화	
계획	설교자는 무슨 시리즈를 마스터하려고 하지만, 청년들은 한 설교에 신경을 쓴다.	시리즈 단편	
생활	설교자는 설교에서 세상 삶의 원칙을 강조하지만, 청년들은 세상 삶의 상황을 강조한다.	원칙 상황	
부흥	설교자는 설교를 통해서 공동체의 부흥을 원하지만, 청년들은 자신의 신앙 부흥을 원한다.	공동체 개인	
내용	설교자는 애매모호한 것을 풀어주려고 하지만, 청년들은 확실한 말씀을 듣고 싶어한다.	애매모호 확실	

2) 청년들의 설교에 대한 기대와 요구는 어떠한가?

- 청년들은 설교에서 ‘감동’을 받고 싶어한다.
- 청년들은 설교를 통해서 ‘삶의 중요한 결정’ 하고자 한다.
- 청년들은 설교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 하고자 한다.
- 청년들은 설교에서 ‘인생을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자 한다.
- 청년들은 설교에서 ‘비전과 사명에 대한 도전’을 받고자 한다.
- 청년들은 설교를 통해 ‘회복과 치유’가 있기를 원한다.

3) 청년들의 설교에 대한 불평은 무엇인가?

- 교회 출석을 하지 않는 최고의 이유? 설교가 이유
- 시대와 세대에 맞지 않는 설교
- 지루한 설교
- 재미없는 설교
- 도전이 되지 않는 설교
- 감동이 없는 설교

4) 청년설교의 초점은 어디에 두어야 하나?

- 본질로 승부하라. 사역의 초점과 부흥의 방법은 말씀의 능력에 대한 체험이다.
- 한 영혼에 대한 관심, 변화로의 초청이 중요하다.
- 미래를 준비하는 비전과 진로를 찾는 사명에 대한 도전이 필요하다.
- 지성과 감성의 균형으로 감동을 주고 결단하게 하여 세상에 도전하도록 하라.
- 사회와 문화의 제반 문제에 대한 성서적 응답이 필요하다.





5) 사역자 자신의 문제와 한계를 돌파하라

- 사역의 우선순위 문제 (교회 일 우선? 청년사역 우선?) 바쁘다?
- 거쳐 가는 여정으로 생각하지 말고, 목숨을 걸어라.
- 부담감과 부족함은 훈련과 은혜로 돌파하라.

2. 청년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1) 설교를 디자인 하라!

- 설교 대상에 대한 분석과 점검? 초신자, 리더, 연령과 관심사
- 무엇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내용과 방법
- 기승전결(起承轉結), 도입, 전개, 응답, 결단을 어떻게 풀어 낼 것인가?
- 설교의 패러다임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강해? 주제?) 귀납법적, 연역법적?
- 자신의 강점을 알고 사용하라
- 잘 팔리는 책(베스트 셀러)에는 이유가 있다.

2) 제목과 본문의 선택은 설교의 절반이다.

- 설교의 제목은 내용을 극대화 시키는 화두(話頭)가 되어야 한다.
- 광고와 책 제목, 패러다의 효과.
- 성경말씀이 핵심인가? 보조자료인가?

3) 처음 도입 3분의 승부에 전력을 다하라.

- 듣지 않는 세대를 향한 비장의 무기를 준비하라
- 설교자 개인의 경험의 설득, 문화 적응력을 통한 설득,
- 청년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설득, 이야기 구조를 통한 설득
- 접촉점으로부터 풀어 가는 연결 고리의 중요성
(칼 바르트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 개그 콘서트의 힘은 무엇인가?

4) 설교의 해석학적 위치를 놓치지 마라

- 도입과 문제제기는 말씀을 풀어내기 위한 장치이다. 본질을 잃지 말 것.
- 설교는 해석학(解釋學)이다.
- 성서(text)와 상황(context)인 삶의 자리 사이에서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다.
-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모든 형식과 매체, 미디어를 동원하라.
- 문제 제기와 말씀의 응답, 상황과의 비교, 대입, 공감을 통해 현장에서 성서의 세계로~

5) 들려지는 설교를 위해 욕심을 버리라

-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주제와 내용과 결론은 하나다.
- 중심에 복음이 있는가? 기독교 세계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중요성
- 정보의 흥수 시대, 욕심을 버리는 것. 원 포인트(one point) 설교의 중요성.





6) 지성과 감성, 영성의 균형이 중요하다.

- 영성과 지성과 감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라.
- 알려진 설교자들을 통해 배우라. (장경철, 이동원, 故 옥한흠, 이재철)
- 설교 단상에서 울어 보았는가? 눈물의 힘

25

7) 최고의 예화는 설교자 자신의 경험이다.

- 자신의 경험과 삶이 예화가 되도록 치열하게 살라
- 청중을 움직이는 최고의 예화는 자기 고백과 경험을 통한 래포(rapport)형성이다.

8) 나침반이 아니라 지도, 약도를 주어야 한다.

- 설교의 결론과 적용의 중요성? 방향이 아닌 장소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
 - 좋은 적용? 3P를 기억하라.
- * 개인적인 것 (personal), 가능한 것(possible), 실천 가능한 것(practical)

9) 과장과 거짓의 유혹을 넘어서라.

- 만연한 표절 설교들, 비겁한 변명. 표절과 모방 사이에서 (애.정.남이 필요)
- 설교자의 삶이 강력한 설교다.

10) 설교를 위한 내공을 쌓으라.

- 재미와 유머의 힘.
- 영적 독서의 중요성.(베스트 셀러 / 경건서적)
- 자주 사용되는 단어에 대한 일목요연한 나만의 정리가 필요
- 주제별 자료 정리의 힘
- 글쓰기와 설교의 상관관계
- 표정, 시선처리, 음성, 손동작도 설교의 일부
- 자신의 약점(trauma)을 넘어서라



Q & A



Q & A

28



Q & A



Step 3 _ 춘천중앙교회 청년부 흥의 비밀이 풀린다

예배, 부흥의 동력

| 황종윤 목사 abba0405@gmail.com 춘천중앙교회 청년담당

1. 예배의 의미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이고,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배는 “인간이 만유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행위” (대상 29:11-13)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것입니다.

30

2. 예배의 중요성

1) _____이 원하십니다.





2) _____이 창조된 목적입니다.

3) _____의 최대 사명입니다.

4) _____의 동력입니다.

3. 예배의 관계성

1) _____과의 관계

2) _____과의 관계

3) _____과의 관계

4. 예배를 드리면 교회가 보인다!

“예배는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숨길 수 없는 반영입니다. 한 교회는 자신의 영적 수준을 능가하는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그 교회의 예배에 참여하는 신자들은 자신들이 드리는 예배 이상의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수준은 예배 안에 갇히고 예배의 질은 삶의 질에 묶입니다.”

김남준 저, 〈예배의 감격에 빠지라〉 16p.

5.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진짜 예배인가?

예배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A. W. 토저의 책 『예배인가, 쇼인가?』에 나오는 아래의 질문들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반드시 점검하고 반성할 만한 것들이다.

- ▶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잊지 않았는가?
- ▶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경배하려는 마음을 갖는가?
- ▶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 ▶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성소가 될 만한가?
- ▶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힘을 기대하는가?
- ▶ 일보다 예배가 먼저임을 알고 있는가?
- ▶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渴望)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6. 춘천중앙 비전교회(청년부) 짧은이 예배

1) 예배 시간과 장소의 독립

춘천에는 4개 대학(강원대, 춘천교대, 한림대, 한림성심대)이 있어서 학기 중에는 외지 학생들이 기숙사에 있거나 자취나 하숙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많은 대학생들이 춘천에서 예배할 교회를 찾게 되고, 우리는 그들이 예배하기에 가장 적당한 시간과 장소를 제공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래서 주일 오전 9시와 11시에 청년들만 교육관 지하의 청년 예배실에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예배만 드리기를 원하는 청년들은 굳이 등록을 강요하지 않고, 원하는 청년들은 셀에 배정을 해서 소그룹 활동까지 하기도 한다. 현재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은 약 40명 정도가 된다.

2) 예배할 수 없다면, 사역을 그만두라!

청년들 가운데 예배 시간에 다른 사역을 하기 위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특히 청년 교사들이 자신이 사역하는 부서에서는 예배를 드리지만, 청년 예배는 자꾸 빠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청년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모든 사역을 그만 두라는 것이었다. 정착 과정에서 부서 간에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청년의 때에 자신이 먼저 예배자로 서지 못한다면, 어떤 사역이든 의미가 없다. 예배할 수 없다면, 사역을 그만 두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다.

3) 새가족도 중요하지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교회가 교인수의 증가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새가족이나 초신자들을 위해 예배의 내용이나 형식을 바꿀 때가 종종 있다. 하지만, 예배의 초점은 반드시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예배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데 일차적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

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새신자들도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굳이 그들을 위해서 예배의 본질을 놓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예배를 예배답게 온전히 드릴 때 새신자들도 하나님 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4) 금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로 청년들을 부른다!

요즘 같은 시대에 청년들이 주일 예배 외에 기도의 자리에 다시 모인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쉽지 않은 일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이라고 여겼고, 그래서 금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를 강조했다. 금요 기도회는 매주 자체적으로 모여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하고 있고, 새벽 기도회는 본당에서 함께 드리되 분기별로 한 번씩 1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한다.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셀 별로 카풀을 실시하고, 아침식사를 준비하여 가능한 한 많은 청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돋고 있다. 주일 예배의 은혜는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로 이어지고, 또한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의 중보 기도는 주일 예배의 은혜로 이어진다.

5) 청년들을 간증자로 세우라!

평소에 필자는 청년들의 진실된 간증은 설교 만큼이나 큰 영향력과 감동을 준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가능한 한 청년들에게 자신의 신앙 고백과 삶의 은혜를 예배 시간에 간증하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제자훈련을 마친 후나 단기선교를 다녀온 후에는 반드시 제비뽑기를 통해 간증자를 세우고, 주일 예배 시 설교 전에 간증을 하도록 시킨다. 교사 사역을 하는 청년이나 사회봉사를 한 청년들에게도 그 은혜를 청년들에게 직접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새생명 전도축제와 같은 행사 때도 가능하면 우리 청년부 안의 새가족 중에서 간증자를 세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





고 있다. 놀랍게도 간증한 청년들이나 그 간증을 들은 청년들 모두가 큰 은혜와 감동을 받으며 서로에게 영적인 자극을 전달하고 있다.

6) 성만찬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라!

존 웨슬리는 성만찬을 신비로운 은혜의 수단(Means of Grace)으로 여겼으며 신앙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필자 역시 그 은혜를 잘 알기에 부임 초기부터 가능하면 자주 성만찬을 가지려고 노력하였다. 교회력에 따른 주요 절기나 전도축제, 단기선교, 수련회 등에는 꼭 성만찬 예배를 드리고 있다. 성만찬 예배시에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청년들은 예배의 감격을 누릴 수 있었다. 매 주일마다 성만찬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가능한 한 자주 갖으려고 노력한다.

7) 친양의 은혜가 넘치게 하라!

청년 예배에서 친양의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친양단을 강하게 훈련시켰고, 새로운 단원을 뽑을 때는 반드시 공식적인 오디션과 면접을 거쳐서 선발했다. 모든 청년 집회와 훈련에는 의무적으로 참석하도록 하였고, 서울에서 실시하는 예배자 학교에도 매주 참석하면서 기초를 단단하게 다지도록 하였다. 친양단이 바뀌니까 친양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은혜는 고스란히 청년들에게 전해졌다. 여전히 부족한 면이 많지만, 자신들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청년 예배의 친양 사역을 담당하는 친양단의 헌신과 수고가 있기에 춘천중앙 비전교회의 예배는 언제나 친양의 열기로 뜨겁다.

Q & A

36



Q & A



Q & A



Q & A



소그룹, 특별한 경험

| 양형주 목사 achamt@naver.com 초원교회 담임 전 천양중앙교회, 전 동안교회 청년담당

I. 소그룹 사역의 큰 틀을 짜라

1. 소그룹은 교회 사역에서 무엇인가?

* 소그룹을 _____의 한 축으로 보는 관점





* 소그룹을 공동체의 _____으로 보는 관점

41

* 소그룹을 공동체의 _____으로 보는 관점

2. 나는 소그룹 사역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 소그룹 사역의 정의가 소그룹 _____을 결정한다.

* 소그룹의 다양한 형태: 셀, 구역, G-12, D-12 등.

* 다양한 형태에 따른 다양한 리더: 성경공부 인도자, 구역장, 목자.

* 소그룹의 목적에 따른 구분: 한시적 _____ 소그룹인가(비전, 목적지향적),
_____ 그룹인가(성품), _____ 그룹인가(진교), _____ 그룹인가(성령의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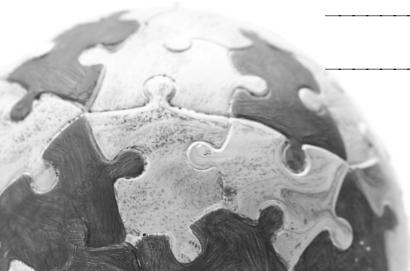
II. 소그룹 사역, 실전으로 들어가기.

1. 오늘날 소그룹 사역의 어려움

* _____ 생활패턴

42

* _____ 의 미숙함





* _____의 약화

* _____의 부족

* 소그룹을 하나의 _____으로 간주하는 사고

2. 소그룹을 _____ 할 것인가? 소그룹에 _____ 할 것인가?

* 경영하려면 _____ 해야 한다.

* 소그룹 _____ 을 경험해 보아야 한다.

* 내가 경험한 최악의 소그룹, 최상의 소그룹

환상적인 소그룹에는 이런 것이 있다.

망하는 소그룹에는 이런 것이 있다.

3. 소그룹 리더의 _____ 리더십을 학습하자.

* 코치형 리더는 :

하나님께서 구성원을 향한 계획과 사랑을 변함없이 _____ 한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_____ 일들을 이룰 수 있다.

코치는 이러한 하나님의 가능성을 _____ 하고 _____ 하는 사람이다.

* 소그룹 리더의 기본적인 자질과 스킬을 익혀야 한다.

- 경청, 칭찬, 인정
 - 칭찬샤워
 - 참여시켜라
-
-
-

Q & A



Q & A

46



Q & A



Step 5 _ 행사를 망치지 않는 궁극의 비밀을 밝힌다

행사 불패의 원리

| 김영석 목사 youngseok74@gmail.com 종교교회 청년담당

행사를 기획하는 일은 곧 그 교회의 목회철학과 일치한다. 기획은 이렇게, 사역은 저렇게 할 수 있지 않은 까닭이다. 지난 5년간 60명에서 350명까지 성장한 종교 교회의 행사기획의 원리를 소개하고자 한다.

1. 할 수 있는 것을 기획하라.

48

-
- a. 하고 싶은 일, 해야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잘할 수 없는 것>에는 미련을 두지마라.
 - b.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평가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c. 공동체의 규모에 맞게 장점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라.

ex) 30명 미만 – 친근하고 관계중심적인 행사

30~80명 – 공동체의 특화된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행사

2. 기도회에 집중하라.

- a.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기도하지 말고 <준비하기 전>에 기도하라.
- b. 함께 기도하면서 행사의 의미와 목적을 깊이 발견하게 될 것이다.
- c. 기도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할 때 행사에 대한 기대와 동기가 부여될 것이다.

ex) 종교교회 기도회 준비방식

- (1) 행사 전 21일, 혹은 40일 동안 기도회를 실시한다.
- (2) 요일마다 기도회 담당자를 세워서 준비하고 인도하게 한다.
- (3) 평균 1시간 정도 기도회를 진행한다.
- (4) 4~5곡의 찬양과 기도회의 목적에 맞는 기도제목들을 나누고 기도한다.
- (5)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도제목을 준비하는 것에 투자한다.
- (6) 철저한 설교준비. 말씀을 통해 동기부여와 현신의 요청이 일어난다.

3.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부여임을 잊지 마라.

- a. 교회는 강제집단이 아니라 자발집단이다.
- b. 책임자들이 자신의 최대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
- c. <즐겁고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d. <의무>를 강조하면 지치지만 <의미>를 강조하면 현신한다.
- e. 일을 맡겨놓고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다.

- f. 무슨 일을 할지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동기부여할지 고민하라.
- g.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는 <모이는 것>이다.
- h. 공동체는 행사를 <통해> 성장하지 않고 행사를 <위해> 부흥한다.

4. 홍보가 전부다.

- a. <어설픈> 선동문구를 사용하지 마라.
- b. 쉽게 할 수 있으면서 홍보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라.
- c.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도록 디자인하라.
- d. 홍보물의 수준이 행사의 질을 결정짓는다.
- e. 가장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이 홍보를 담당해야 한다.
- f. 참여자 모두가 홍보요원이 되게하라. 진행자들만의 홍보는 힘없는 책임전가다.
- g. 갖은 수단을 다 동원하라.

— 예배광고, 인터넷, 각종현수막, 포스터, 초대장, 동영상, 신청서, 전화, 문자메시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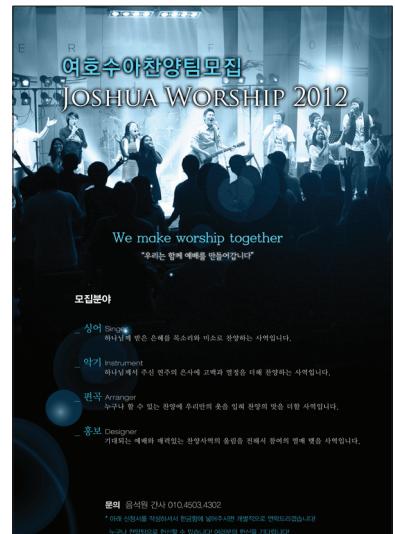


50

1

2

1. 젊은이예배 제단베너
2. 친양팀모집 광고포스터



2009년 11월 13일(금)-15일(주일)

7:30 pm(금,토) 3층 예배실

3:00 pm(주일) 3층 예배실



강서 이재만

현대 창조과학학교 부회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강원대학교에서 지질학석사를 졸업하고

미국 창조과학 연구소(Creation Research Society)

과학교학부 철학 전공석사(SW)

미국 그린스 레이즈 신학대학원에서 구교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미시간 크로스온 기독대학원에서 1996년까지 지질학 강의를 하였습니다.

창조과학세미나 CREATION TRUTH SEMINAR



Once Again

2011 Joshua Summer Outreach

선교후원의 밤

7월 8일(금) 밤 8시



청부부는 올해 *(다시 찾는 선교지)*라는 주제로 필리핀과 스리랑카에 떠납니다.
필리핀과 스리랑카에
스리랑카의 개척교도로서 응원을 기울입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예배 때 드려진 헌금은 전액 필리핀과
스리랑카의 선교사업을 위한 선교비로 전달됩니다.

3

4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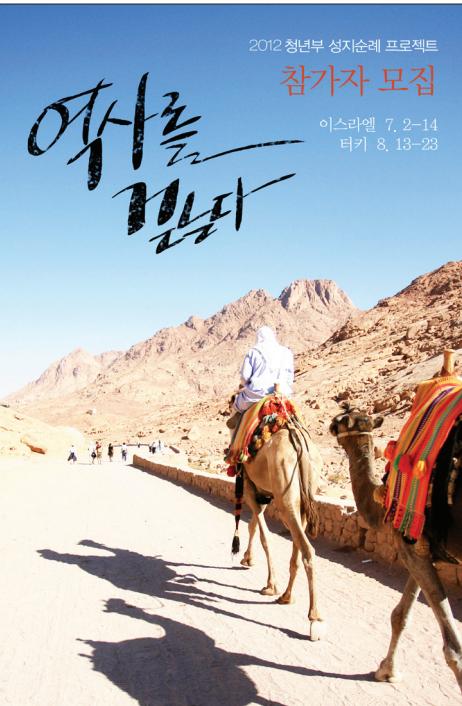
3. 창조과학세미나 모니터 광고
4. 선교후원 모니터 광고
5. 로마서 암송대회 포스터
6. 성지순례 모집 포스터



여호수아 로마서 암송 프로젝트
주의 말씀은 내 밤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2011. 8. 26
금요헌신자예배
종교교회 2층 예배실

- Chapter 1. 강혜영
- Chapter 2. 김아영
- Chapter 3. 이은혜
- Chapter 4. 정 별
- Chapter 5. 정민혜
- Chapter 6. 장지민
- Chapter 7. 윤보라
- Chapter 8. 성민아



2012 청년부 성지순례 프로젝트

참가자 모집

이스라엘 7. 2-14
터키 8. 13-23

5. 동선에 신경써라.

- a. 행사 당일에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동선>에 신경쓰는 것이다.
- b.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색해 하거나 당황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 c. 진행부의 편의나 능력에 맞추지 말고 참여자의 필요에 반응하라.
- d. 행사진행이 순조로우려면 미리 동선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야 한다.

6. 표정으로 일하라.

- a. 행사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이다.
- b. 행사의 성패는 이미 스텝들의 표정에서 결정된다.
- c. 사람들은 행사의 <내용>보다 준비하는 이들의 <표정>에 관심이 많다.
- d. 리더를 돋는 가장 좋은 길은 표정으로 도와주는 것이다.

7. 마무리가 생명이다.

- a. 일을 계획하는 사람은 많지만 일을 마무리 할 줄 아는 사람은 드물다.
- b. 일은 계획할 때가 아니라 마무리 할 때 가장 힘들다는 것을 기억하라.
- c.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초단위로 몰려와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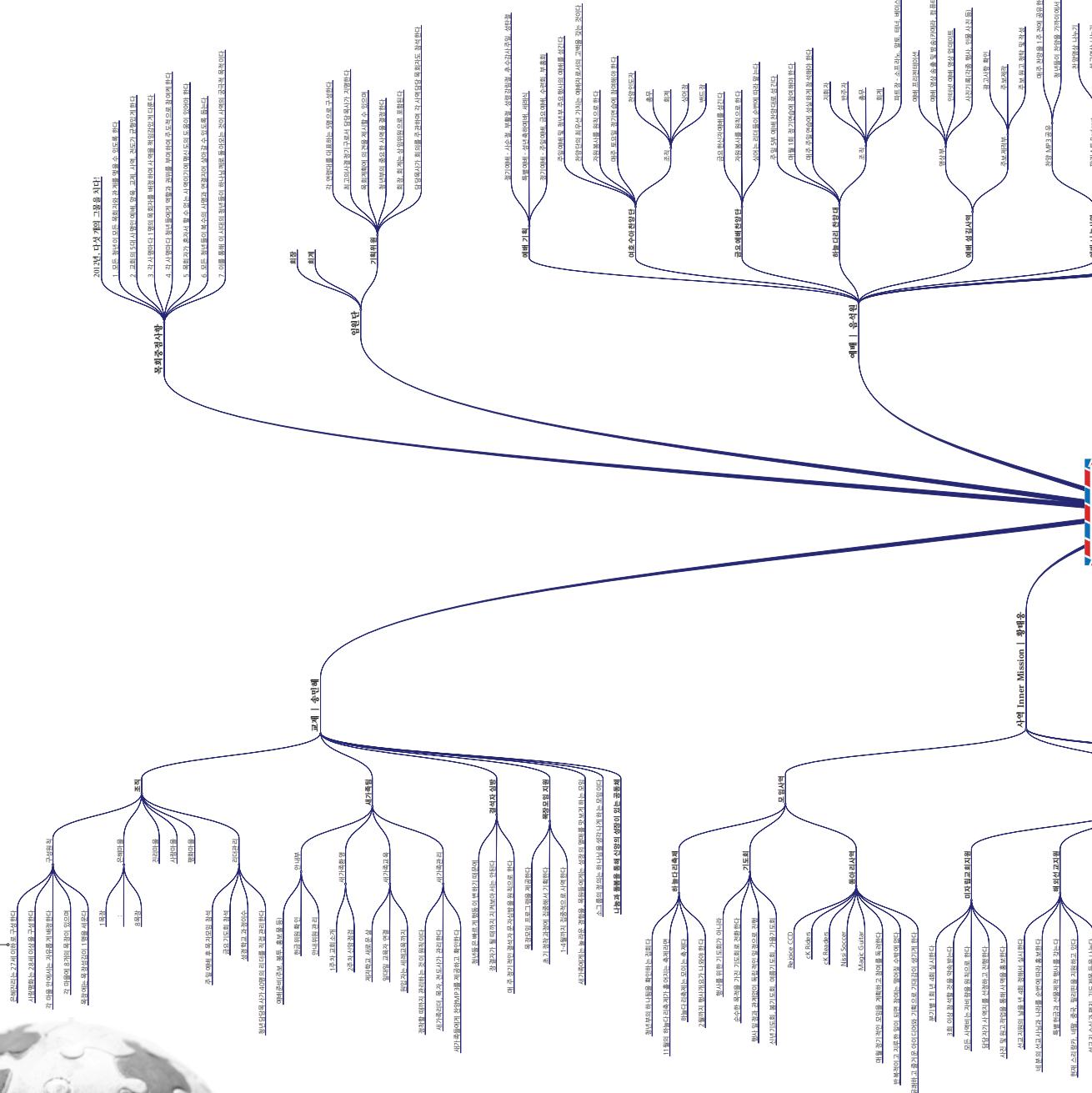
8. 최고의 것으로 준비하고 배려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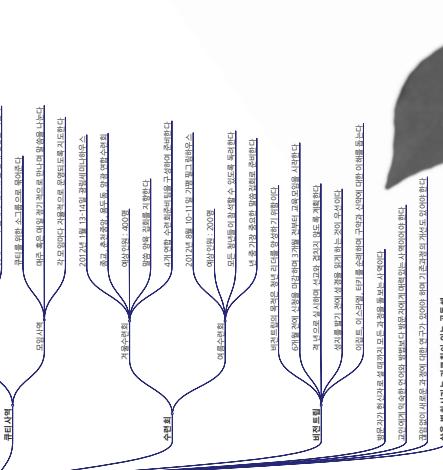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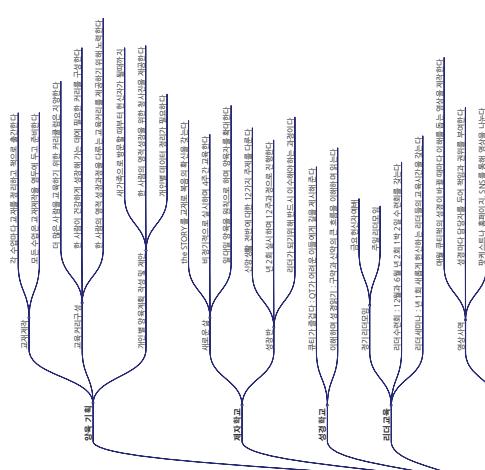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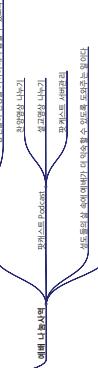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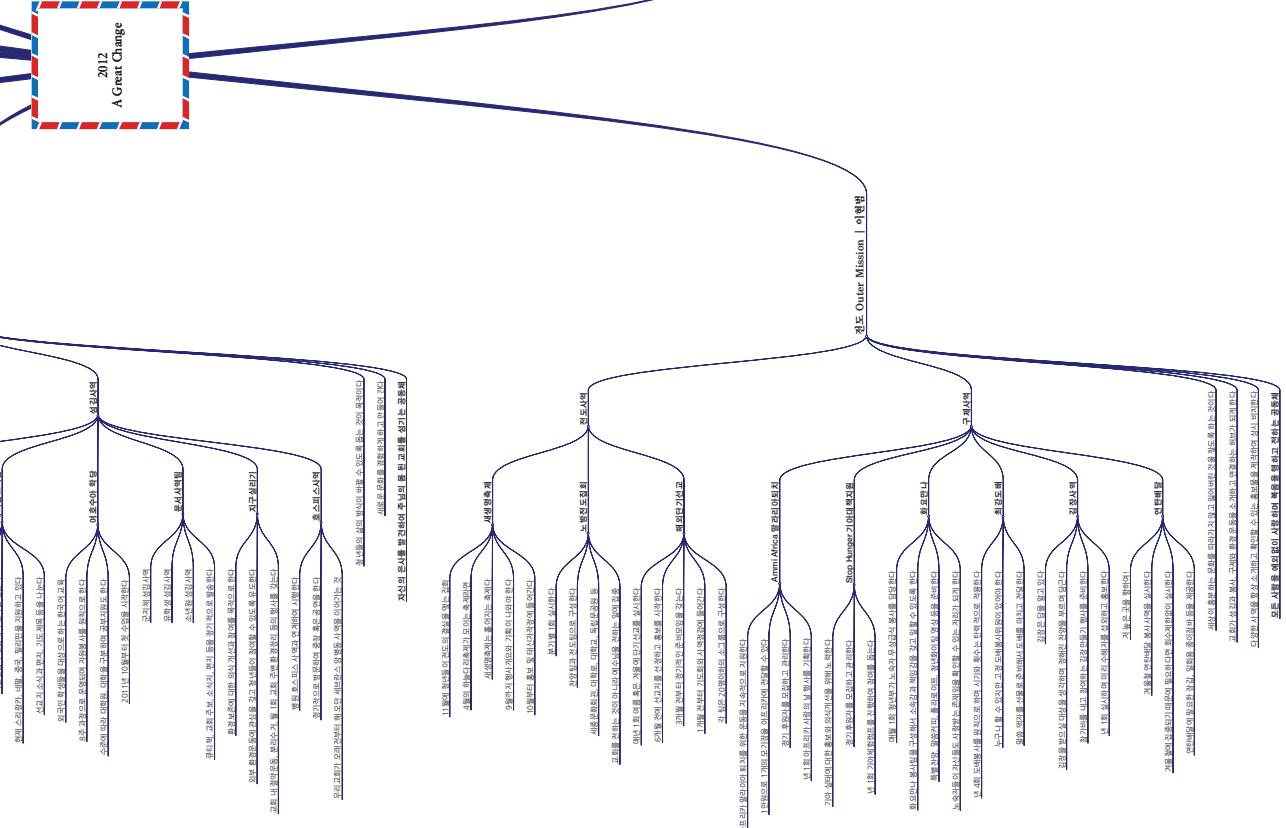
- a. 강요하기보다 감동하게 해야 한다.
- b. <강요>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면 <탁월>한 것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
- c. <어느 정도> 준비하지 말고 <힘에 부치게> 준비하라.



Q & A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정기사역	하늘다리 / 새생명축제		행사기획	축제 준비	하늘다리축제	
	기도회	신년기도회 (1/2~13, 2주)			큐티 기도회 (2~13, 2주)	
	비전트립 / 해외선교					비전 트립
	수련회	연합 수련회 (1/13~14)				
예배사역	예배	신년 감사예배		세례축하예배	고난주간예배 부활감사예배	성년축하예배
	세미나	예배 세미나	하늘다리 찬양대 세미나			목회팀 세미나
양육	성경학교	일대일양육 1기	봄 성경학교 개강	일대일양육 2기		일대일양육 3기
동아리사역	Rejoyce CCD			예배 특송 (2째 주)		
	ck Riders			매달 3째 주 (토) 정기모임, 한강 / 서울 근교	소풍 5/19 (해이리 라이딩)	
	ck Readers	[한 달에 한 권 책 읽기 프로젝트] 월 초에 여호수아 전체를 대상 ck Readers 멤버는 한 달에 한 번 번개 모임을 열어 독서 나눔의 시간을 갖는다.				
	Nissi Soccer (김현석)			시즌 개막! (3/11)	매달 1~2주 AI	
	Magic Guitar (구오남)		Magic Guitar 1기 개강 (8주, 2/4~3/24)	예배 특송 (2째 주)		
섬김사역	비전교회지원	소식 나눔	지원: 1분기 (함께 예배하기)	비전교회 기도제목 및 소식 나눔		
	해외선교지원	선교지 기도제목 및 소식 나눔	현금 및 물품 후원기간	선교지원주일 필리핀, 스리랑카	선교지 후원	
	여호수아 학당	준비	여호수아 학당 2기 (2/18~4/7)	준비	여호수아 (5/19~6/15)	
	문서사역팀		정기발송	정기발송	가족사랑 (소년원)	
	지구 살리기	매달 3째주 광화문 청소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교회 화장실 환경미화 (월중)	지구의 날(4/22) 불끄기 캠페인	매달 3째주 광화문 청소
	구제봉사	말라리아 퇴치 사역 기금모금	일일기아체험 및 후원모금	도배봉사	매월 첫째주 광화문 청소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새생명 축제 기획 및 준비	새생명 축제	
	여름 기도회 (2~13, 2주)			테마 기도회 (10/22~11/2, 2주)		
트립 준비	이스라엘 (7/2~14주)	터키 (8/13~23)		해외선교 국가선정 및 신청	해외선교 준비	
	수련회 준비	여름 수련회 (8/9~11)				
세례축하예배			세례축하예배	성찬예배	추수감사예배	세례축하예배 성탄축하예배
새가족팀 세미나	예배섬김팀 세미나	여호수아 찬양팀 세미나				
	일대일양육 4기		가을 성경학교 개강	일대일양육 5기		
예배 특송 (2째 주)			예배 특송 (2째 주)			예배 특송 (2째 주)
	매달 3째 주 (토) 정기모임, 한강 / 서울 근교		소풍 9/15 (산 라이딩)	매달 3째 주 정기모임		
대상으로 추천도서를 선정하고 다. 장르 – 정치경제, 사회, 문학, 신학, 예술 등			책을 읽다! 9~10월 중 (여호수아 가을 독후감 대회)			
1~2회 축구시합 (1주: 뉴시끼리, 2주: vs 타팀) AM 9시 시합 → 점심식사 후 해산			시즌 종료! (11/4)			
Magic Guitar 2기 개강 (8주, 6/2~7/21)	예배 특송 (2째 주)		Magic Guitar 3기 개강 (8주, 10/6~11/17)	예배 특송 (2째 주)		
지원: 2분기 (함께 예배하기)	비전교회 기도제목 및 소식 나눔	지원: 3분기 (함께 예배하기)	소식 나눔	지원: 4분기 (함께 예배하기)	소식 나눔	
교지 기도제목 및 소식 나눔	현금 및 물품 후원기간	선교지원주일 중국 네팔		현금 및 물품 후원기간	선교지원주일 (1째주, All)	
수아 학당 3기 (5/19~7/7)	여름방학		여호수아 학당 4기 (10/13~12/1)	준비		
정기발송		정기발송		정기발송	겨울선물 발송	정기발송
환경의 날(6/2) 나무심기!	매달 3째주 광화문 일대 쓰레기 줍기	교회 분리수거 캠패인	등산하며 지구 살리기 (1째주)	매달 3째주 광화문 일대 쓰레기 줍기		
첫째주 화요일 새벽 화요만나 (노숙자 배식 봉사)			연탄배달 김장담그기	일일기아체험 캠프 및 모금		

Q & A



Q & A



양육, 세우는 기쁨

| 현철호 목사 e91joy@hanmail.net 현 백운교회 담임목사, 전 아현교회 청년담당

1. 양육이란 무엇인가?



2. 양육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61



3. 양육이 일어나는 자리

1) 예배의 자리

2) 기도의 자리

3) 목상의 자리

4) 소그룹

5) 사역의 자리

6) 리더와의 만남

7) 수련회





8) 단기선교

9) 훈련의 자리

63

4. 양육체계의 이론과 실제

1) 정착과정

2) 새가족과정 (새가족반)

3) 공동체양육과정 (소그룹, 사역팀, 또래모임)

4) 기본훈련과정 (양육반)

5) 제자훈련과정 (제자반)

6) 사역훈련과정 (리더반 등)

64

7) 외부유타훈련



5. 우리교회 청년부에 맞는 양육체계는?



6. 양육의 기쁨을 누리라

Q & A



Q & A



Q & A



Q & A



소그룹 토의, 첫번째 시간





72









방문자를 헌신자로

| 김동준 목사 songdirector@empal.com 강서교회 담임목사





78





80





섬김, 리더교육의 핵심

| 심은수 목사 sesbc153@gmail.com 베다니교회 청년담당

잘 훈련된 한 사람이 공동체 전체를 바꿀 수 있다.

그 한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청년 공동체의 사명이다.

그 한 사람을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청년 공동체는 건강해지고 성장하게 된다.

1. _____이 희망이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공동체를 변화시킬 리더 한 사람을 세워라.

목회자보다 영향력 있는 선배 한 사람을 키워라.





2. 리더에 대한 _____

기도만 하면 1시간은 기분?
입만 열면 말씀이 술술?
모든 일에 아멘으로?
큐티로 하루를 열고 닫는다?
시간만 나면 앙들을 심방한다?
모임 때마다 지갑을 연다?

3. 리더인 당신, _____ 섬기고 있는가?

리더들에게 솔직히 물어보자. 리더로서 행복하냐고.
사명감이나 의무감만으로는 부족하다.
리더는 행복 바이러스이어야 한다.
리더들을 위한 깜짝 이벤트를 만들어라.
탈진되어가는 리더들에 대해 발 빼르게 대처하라.

4. 리더인 당신, _____하고 있는가?

리더들이 스스로 성장을 경험하도록 하라.

리더들도 자신만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라.

리더를 재교육시킬 수 있는 보완장치—성경공부 및 기타 훈련—를 마련하라.

돌봄을 받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소그룹에 속하라.

새롭게 리더로 세울 사람들도 미리 교육에 참여시키라.

5. 리더교육의 필수사항

성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강의하라

매주 이어질 사역의 흐름을 붙잡으라

리더들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라.

모두 청년 목회자가 되게 하라. 목회철학을 공유하라

기도로 무장시키라.





6. _____과 _____의 균형

양육리더(소그룹 리더), 행정리더(임원), 사역리더(팀장)가 함께 어우러지게 하라.
일방적인 학습의 시간이 아닌 <공감>과 <나눔>의 시간이 되게 하라.
리더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일정 부분 교육도 필요하지만 그것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하라. 다그치는 시간이 아니라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이 되게 하라.

7. _____로 분위기를 전환하라.

리더 수련회를 통해 마음껏 행복하게 하라.
리더가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라.
분위기가 관건이다. 모두 함께 하나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라.
리더십을 세워가는 시간으로 삼으라.

* 베다니교회 젊은백성의 사례

기존의 일방적인 강의식 리더교육의 형식에서 벗어나 패밀리 모임을 통해 나눔을 강화하고, 전체 기도회를 통해 영적인 돌봄을 강화했다. 현재 토요일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는 리더교육은 1시간의 패밀리 모임과 1시간의 공지사항 전달과 기도회로 이루어지고 있다.

A. 리더(Leader)에서 섬김이(Servant)로의 전환

〈리더〉라는 호칭이 주는 무게감으로 인해 리더들도, 지체들도 리더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부담감이 있어 섬김이로서의 〈리더〉를 강조하기 위해 2011년 가을 호칭을 〈섬김이〉로 변경하였다. 아래의 내용은 섬김이로서 기본적으로 품어야 할 마음으로 이 마음을 공동체 모두가 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한다.

- 리더는 〈섬김이〉다
- 젊은백성 모두는 〈섬김이〉다
- 〈섬김이〉는 소그룹 구성원 중 다른 지체들보다 특별히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라기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지체들을 위하여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드려 헌신하는 사람이다.
- 상황에 따라 영적 리더와 상의하여 언제든 〈섬김이〉를 내려놓을 수 있다. 그리고 언제든 다시 〈섬김이〉로 헌신할 마음을 품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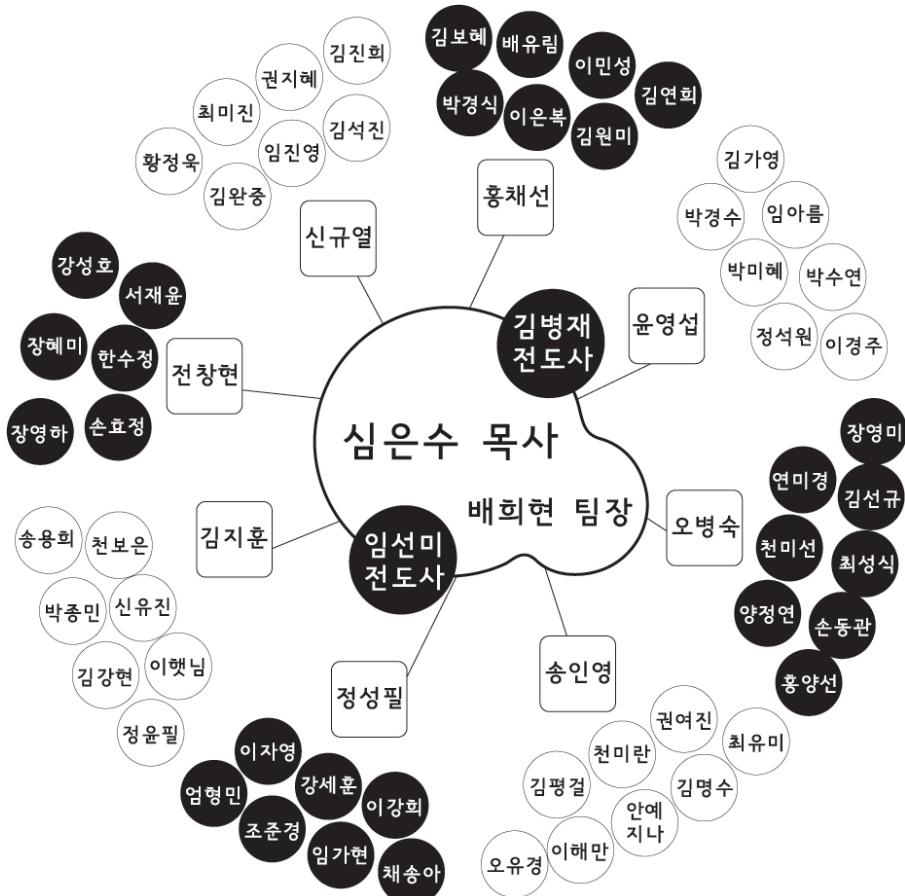
B. 패밀리 모임의 강화

- 8명의 엘더들에게 리더십을 부여하여 섬김이들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 패밀리 안에서 섬김이들끼리 서로 CM(소그룹)의 어려움을 나누기도 하고 유익한 점을 공유하기도 한다.



- 정기적으로 패밀리별 나들이를 통하여 패밀리의 단합을 꾀하고 섬김이들이 여유를 갖게 한다.
- 새로운 CM을 맡게될 사람들을 미리 패밀리에 편성해서 섬김이로서의 역할을 익혀가게 한다.
- 목회자의 영적 돌봄에 한계가 있다. 믿음의 선배들이 후배들을 돌볼 수 있게 하라.

* 짊은백성 섬김이 조직도



Q & A



Q & A



Q & A

90



Q & A



소그룹 토의, 두번째 시간





94









98





메모의 힘

선명한 기억보다 흐릿한 잉크가 오래간다.

These commandments that I give you today are to be upon your hearts.

Impress them on your children.

Talk about them when you sit at home and when you walk along the road,

when you lie down and when you get up.

Tie them as symbols on your hands and bind them on your foreheads.

Write them on the doorframes of your houses and on your gates.

Deuteronomy 4:6-9



101

ANSWER

102





103

ANSWER









107

ANSWER

Q & A

108



Q & A



110





111

제5기 청년목회 전문훈련과정

펴낸날 : 2011년 11월 7일

펴낸이 : 신경하

엮은이 : 이화식

편 집 : 정현범 02) 399-4371

홈페이지 : <http://www.kmcedu.or.kr>

이메일 : kmcedu@chol.com